

♥ 다시 태어난다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뇌성마비 딸 영미를 안타깝게 바라보아야만 하는 어머니는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사는 느낌이었다. 10년여 바람 끝에 겨우 얻은 딸이 장애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머니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 걸' 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유난히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깜박이는 아이를 볼 때마다 이내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비록 몸이 불구인 딸이지만 마음이나 정신만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키우기로 결심했다.

사실 어머니에게 매일매일은 힘겨운 나날이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눈물겹도록 헌신적으로 키웠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를 여느 보통 아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학교도 장애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입학시켰다. 아픈 사람일수록 깨끗해야 한다며 하루에 두 번씩 갈아 입힌 옷 때문에 어머니는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했다. 또 학과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아이와 함께 학년을 같이 올라가며 어머니는 공부를 시작했다. 그야말로 딸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와 모든 것을 함께 하려 했다.

그러나 그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아이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병신'이라는 놀림에 절망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모두가 엄마 탓이라며 울어대곤 했다. 그런 딸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가슴은 슬픔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미소 띤 얼굴로 아이를 껴안고 말했다. "울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불구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구인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다른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 넌 조금도 불행하지 않아 넌 누구보다 건강한 아이인 거야."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의 위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흘 밤낮을 울어댔다. 그래도 어머니의 깊은 뜻은 꺾이지 않았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를 달래어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시켰다. 그동안 보여준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에게 장애에 대한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었다. 아이는 누구보다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 든 순간 아이는 이제껏 받아 왔을 어머니의 고통과 명을 해하려 보았다. 그때서야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졸업식장에서 대표로 연설하게 된 아이는 단상에 올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제가 만약 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끝도 깊이도 모르는 사랑을 갚을 길은 오직 그 길 뿐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섬김과봉사 *익명성-명예
제 9권 1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5월 13일
☎ 369-5077 Howe St. City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十 표현하는 언어 vs 녹아있는 언어

전쟁으로 한쪽 눈을 잃은 왕이 있었다. 세명의 화가들을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첫 번째 화가는 양쪽 눈이 모두 건강한 모습의 초상화를 그렸다. 보기에는 좋았지만, 진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쫓아내 버렸다. 두 번째 화가는 사실적으로 그렸다. 한쪽 눈은 건강하고, 한쪽 눈은 애꾸인 모습으로 그렸다. 사실이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그도 쫓아내 버렸다. 세 번째 화가는 건강한 눈이 있는 옆쪽 모습을 그렸다. 비전을 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매우 진취적으로 보였다. 이 초상화는 보기에도 좋고, 또 사실에 반하지도 않는 그림이었다. 세 번째 화가에게 상을 주며 칭찬했다고 한다.

지혜란 무엇인가?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것이다. 세 번째 화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왕의 마음을 얻고, 사실과도 충돌하지 않는 일처리를 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항상 진리를 말한다. 그런데 마음을 상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난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있는 요셉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 45:5) 용서한다는 말이다. 이 말 속에 용서라는 단어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용서가 이미 녹아 있는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내신 사명을 이야기한다. 그 말 속에 이미 용서는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도망친 면목이 없는 상태이다. 이때 예수님은 왜 부인 했냐, 왜 도망 쳤냐를 묻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는 대답을 듣는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다. 용서라는 단어가 한번도 들어 있지 않지만, 그 속에는 이미 용서가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탁월한 언어생활이다. 말하지 않고도 전달될 수 있는 언어가 진짜 탁월한 언어이다. 이런 언어는 아프지 않다. 이런 언어는 상처입은 심령을 치료한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런 언어를 접하게 된다. 어머니에게 크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 어머니는 용서를 들먹이지 않는다. 대신 아주 좋은 반찬이 나왔다. 이것은 용서의 반찬이다. 국이 식었다. 식은 국을 따뜻한 국으로 바꾸어준다. 그 국은 용서의 국이다. 용서라는 말을 한마디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서 용서는 이미 다 녹아서 전달된 것이다. 표현하는 언어보다 녹아있는 언어가 더 탁월하다. 탁월한 언어는 사랑의 가슴에서만 나오는 생수인 것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

함께하는 주일 예배 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Hymn	29 장	다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72(아버이주일)	다같이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어린이 시간		주일학교
찬송 Hymn	304 장	다같이
기도 Pray		정관영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5장11-2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 사랑의 추적자 -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315 장	다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1138	총액: \$ 313,841.70
----------------------	-------------------

◆5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응답송	안내
29	임혜자		본당:권사
6	장현중		현관(1)김교섭 최재학
13	정관영		현관(2)장현중 정덕수
20	정덕수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7	정희자		윤주야 장유진

◆5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6	어린이주일	구역예배
13	아버이주일	
20		여성교회 월례회
27	성령강림주일	남선교회 월례회.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 :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 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 수요일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 금 5:50 | 청년부: 수요일 7:00

* 등록을 원하시는 새 교우는 예배후 새 가족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하며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던 때가 옛그제 같은데 벌써 장성한 자녀가 달아준 꽃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2. 교우소식 : 입원-조현구 성도 (오uckland병원 759호)

3. Tax Refund를 위한 현금 영수증이 안내석에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안내위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일예배 설교와 성가대 찬양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 www.calvary.org.nz

5.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좌석은 가급적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시인들▶

◆ 어머니의 눈물 -정두리-

회초리를 들었지만
못 때리신다.
아픈 때보다 더 무서운
무서운 목소리보다 더 무서운
어머니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진다.
어머니의 굵은 눈물에
내가 젖는다.